



주대회 작 '수영준비~!'

# 신진작가들, 열정을 펼치다

새로운 작가의 출현은 언제나 가슴 설레는 일이다. 신진작가들은 정형화되는 기존 화단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선배들의 창작욕구도 자극해준다. 봄을 앞둔 광주지역 화랑가에 젊은 작가들의 작품이 대거 내걸린다.

광주미술협회와 위탁 운영중인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은 9~22일 지역 젊은 미디어아티스트의 모임 '솔라이클립스'(solar eclipse)의 초대전을 연다. 지난 2010년 결성된 솔라이클립스는 어둠 속에서 더욱 빛나는 빛을 미디어 아트로 승화시킨다는 뜻이 담겨 있다.

이번 전시에는 김일태·박상호·장석원·조용신·김광철·신도원·나명규·임순중·진시영·이이남·박상화·권승찬·박관우·방우송씨가 참여해 사진과 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미디어 아트를 선사한다.

진시영씨는 춤을 추는 무용수의 몸에 LED 조명을 붙여 사진과 영상으로 찍어낸 뒤 이를 다시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을 선보이고, 권승찬씨는 창문과 사진, 활자에 빛을 투영한 설치 작품을 전시한다.

또 장석원씨는 '나는 너를 좋아해'라는 글자와 자화상을 대비시킨 'LOVE'를 출품했고, 이이남씨는 유명 고전 작품을 미디어아트 기법으로 움직임이 한 작품을 선보인다. 문의 062-222-8053.

조선대학교미술관은 오는 17일~3월10일 미술대학을 졸업한지 10년 이내의 작가들의 작품을 모은 '동문국제네트워킹전-세계를 누비다'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강동호·강요상·구미란·김동아·김동인·김명우·김영일·김은와·박상현·서영기·송지운·안희주·이승일·이인성·이조흠·이호동·장진수·조은애·주대회·최

미연·황지연씨 33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서양화, 한국화, 관화, 조소, 영상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 50여점이 선보인다. 주대회씨는 아이스크림을 들고 행복에 겨워하는 아이, 강아지와 뛰어노는 아이, 울음을 터뜨린 아이 등 수목의 단아함으로 그린 동심의 세계를 펼쳐보인다.

또 이조흠씨는 인기 만화인 '스머프'의 등장인물이 수 없이 복제되는 과정을 화폭에 담았고, 황지연씨는 낚시대를 든 강아지와 아이들의 모습을 양중맞게 묘사했다.

조선대미술관은 이번 전시를 통해 신진작가들을 발굴하고, 이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 062-230-67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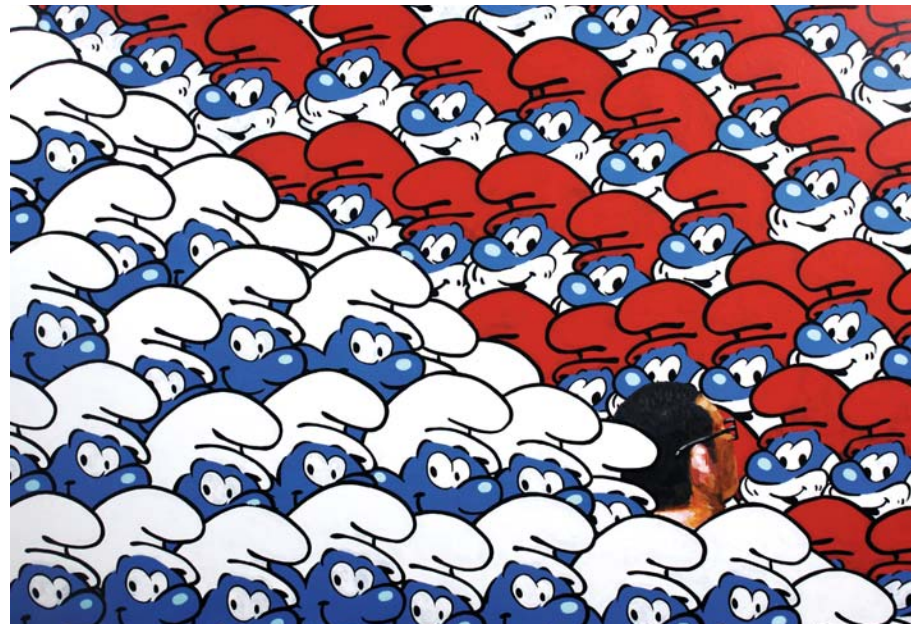
이 밖에 시안갤러리는 오는 10일~3월8일 올해 광주지역 미술대학과 미술학과 졸업한

새내기 작가들의 작품을 모은 '그들의 출구'전을 연다. 지난 2009년 '시안갤러리 초심'전이 라는 이름으로 첫 시작된 이 기획은 올해로 4회째를 맞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조선대 졸업생 김동익·김민우·마경완·박다혜·윤준성씨와 전남대 졸업생 권보라·김민아·김성수·전소라·최정훈씨, 호남대를 나온 오경순·이권훈·이은미씨, 광주대를 졸업한 임이랑·조민영 등 15명이 참가해 서양화, 한국화, 조각, 사진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을 선보인다.

김민우씨는 입체적으로 여성의 얼굴을 소재로 거친 질감과 부드러운 표현 어우러진 작품을 내놨고, 박다혜씨는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섬세한 표현력으로 묘사한 작품을 전시한다. 문의 062-570-2334.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이조흠 작 'intersection'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

9일~22일 '솔라이클립스'전

조선대미술관

17일~3월 10일 '세계를 누비다'전

시안갤러리

10일~3월8일 '그들의 출구'전



# 클래식 기타 선율로 담아낸 '왈츠 사이로'

10일 드니 성호 연주회, 문예회관 소극장

'기타로 듣는 쇼팽의 왈츠'

광주에서는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클래식 기타 연주회가 열린다.

한국계 연주자로 세계 음악계에서 탄탄한 입지를 굳히고 있는 드니 성호 안센스가 10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공연을 갖는다.

드니 성호 안센스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비올리스트 리차드 용재 오닐처럼 입양아

다. 생후 9개월 때 벨기에 가정으로 입양된 드니 성호는 8세 때 기타를 시작, 14세 때 벨기에 'Young Talent' 콩쿠르에서 1위에 입상하여 두각을 나타냈고 파리 고등사범음악원, 벨기에 몽스 왕립음악원, 벨기에 브뤼셀 왕립음악원 등에서 수학했다.

2005년 뉴욕 카네기홀 데뷔 무대를 가진 드니 성호는 암스테르담 콘서트헤보우, 빈 뮤지크페라인, 팔스부르크 모차르테움

등 세계적인 명성의 무대에서 공연했으며 탈레가, 피아졸라 등의 소품으로 구성된 '리벤버린스'와 '니콜로 파가니니 기리비치 전곡' 등 다양한 음반을 발표했다.

'왈츠 사이로'라는 타이틀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는 쇼팽의 '왈츠 작품번호 69', 바리오스의 '왈츠 3번', JK 멀츠의 '헝가리 안 환상곡', 로보스의 '전주곡 1번, 3번', 자작곡 'Korean Mountain Morning Due' 등을 들려준다.

티켓 가격 4만원, 3만원. 문의 02-749-8827 /김미연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국립박물관에

# 龍이...

오늘부터 '겨울! 박물관 이야기'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조현중)은 용의 해를 맞아 8~29일 용과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인 '겨울! 박물관 이야기'를 진행한다.

국내에서 용은 권위, 기복, 기우, 벽사, 입신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 예술 작품으로 다양하게 사용돼 왔다. 또 군왕과 하늘의 뜻으로 연결돼 용은 상류 계층의 특권적인 신앙적 표현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우리 전통문화에서 용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알아

고, 다양한 예술 체험이 결합된다. 교육을 받은 참가자들이 철화백자나 민화에 등장하는 용의 모습을 한국화 기법으로 즉자해 그려보는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어린이와 함께 박물관을 찾은 가족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재료비 4000원이다. 문의 062-570-7053.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아련한 추억을 되새기는 시간

광주전남우리가곡부르기, 10일 호남신학대 카페 티브라운

아름다운 시와 멜로디가 어우러진 가곡은 삭막해진 현대인의 감성을 깨우는 역할을 한다.

한달에 한번(매월 두번째 금요일)씩 아름다운 한국 가곡을 부르는 광주전남우리가곡부르기(회장 황선숙)가 어느덧 40회를 맞았다.

10일 오후 7시30분 호남신학대 카페 티브라운에서 열리는 이번 2월 행사는 참가자들의 아련한 추억을 되새기게 해주는 곡들을 함께 불러보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그대 있음에' '가고파' '선구자' '성불사의 밤' '떠나는 배', '보리밭' 등 학창시절 음악시간에 누구나 한번쯤 불러봤을 곡들이다.

참가자들이 함께 배워보는 노래는 고(故) 이호섭 작곡가의 '옛날은 가고 있어도'. 또 순천시립합창단 상임단원으로 활동중인 소프라노 박진숙씨가 '얼굴'과 '새타령'을 들려주며 박진영·심옥호·이훈·문명수씨 등 회원 연주도 만날 수 있다. 1만 원의 참가비를 내면 차와 간단한 먹을거리를 즐길 수 있다. 문의 016-694-4592, 062-575-5999.

/김미연기자 mekim@kwangju.co.kr



이호섭

# 문고관 '살림지식총서' 400호 돌파

간편하게 들고 읽을 수 있는 문고관으로 퍼낸 인문서 시리즈인 '살림지식총서'가 400호 발간을 돌파했다.

살림 출판사는 살림지식총서가 지난 2003년 1호 발간 이후 9년여 만에 400호 특집관을 펴냈다고 7일 밝혔다.

특집관은 396~402호에 해당하는 7권을 시리즈로 묶은 것으로, 올해 총선과 대선을 맞아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리스크를 분야별로 진단했다.

중앙대 사회학과 신광영 교수, 세종연구소 김기수 수석연구위원, 좋은예산센터 최인욱 사무국장 등이 금융, 보안, 복지, 중복

주의 등 7가지 이슈를 파헤친다.

살림지식총서는 '미국의 좌파와 우파' 등 미국 시리즈를 1~10호로 펴낸 것을 시작으로 독자들에게 꾸준히 문고관 인문서를 소개해왔다.

살림 관계자는 "출판계 침체에도 역사, 종교, 철학, 과학, 예술 등 각 분야를 다룬 문고관 인문서를 지속적으로 발간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책은 권당 100쪽 안팎이며, 각권 3300원. /연합뉴스



# 희망찬 壬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한 해 보내주셨던 관심과 사랑에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올 한해도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고객님 한분 한분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30년 전통의 한정식 (기본3인이상) A코스 - 38,000원 B코스 - 33,000원 C코스 - 25,000원  
평일 주중 점심특선 오찬정식 (기본3인이상) 15,000원 신년 모임을 위한 떡국정식 (기본3인이상) 15,000원

금수장관광호텔아리랑하우스 |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광주 외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www.geumsoojang.com

최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Be natural Be delicious



150여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뷔페



가격안내 (이용시간: 11:30~22:00)

- 평일 성인(중학생이상) : 25,000원
- 토·일·공휴일 성인(중학생이상) : 29,000원

각종 모임 및 행사예약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 ● 출장뷔페, 도시락

유스퀘어 U-square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

# 유스퀘어 사우나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피부샵(스파·마사지) 인터넷 · 안마기 · 이용원 · 세션 · 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 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